

GE Silicone, Momentive Korea로 개명

GE Toshiba Silicones Korea가 Momentive Performance Materials Korea로 새롭게 출발한다.

GE Toshiba Silicones Korea는 12월6일 개명 사실을 발표했으며 GE Advanced Materials의 매각에 따른 조치로 파악되고 있다.

GE Advanced Materials은 M&A에 따라 Apollo Management 산하 Momentive Performance Materials로 거듭났으며 거래액은 38억달러에 달했다.

M&A에는 Toshiba와의 합작기업 GE Toshiba Silicones 및 Bayer과의 합작기업 GE Bayer Silicones도 포함돼 GE Advanced Materials이 Toshiba와 Bayer의 합작지분을 모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GE Advanced Materials의 CEO였던 Wayne Hewett이 Momentive Performance Materials의 CEO직을 계속 수행하며 GE Advanced Materials의 매출은 2005년 25억달러, 직원은 5000명에 달했다.

<화학저널 2006/12/06>